

봉사부 탐방기 <설만한 물가>

설만한물가로 오세요!



목요일 오전 11시. 벌써 테이블마다 부드러운 커피 향과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 찼다. 총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2명이 돌보는 <설만한 물가>는 주일보다 주중이 분주하다. 특히 학기 초의 학부모 총회를 시작으로 동창회, 교육청 행사, 입시 설명회, 세미나 등 학교행사에 어떤 때는 몇 천 명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도 학교 안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을 몰랐다면 아늑한 분위기에 끌려 들어오는 분들께 '주님이라는 진정한 섬'의 '길목'이 된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모른다. 또 수익금으로 도움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지만 평일 6시, 주일 3시 이후까지 열린 문이 되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잘 모르지만 봉사란 그냥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 같아요." 팀장인 이은우 권사는 손님이 없어도 뒤쪽에 숨어 김밥을 먹는 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하게 웃는다. "봉사라고 한니까 부끄러워요. 오히려 제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바리스타 집사님의 소녀처럼 수줍은 말과 봉사자들의 화창한 웃음이 유리창에 반짝이는 봄 햇살보다 눈부시다.

문현주 전도사

고난주간 호산나 성가대 칸타타



고난주간 성찬과 찬양예배가 4월 8일 수요일 대예배실에서 드러졌다.

주일날 1부 찬양을 담당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준비로 드러진

이번 칸타타는 찬양대만의 순서로 구성되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참여의 칸타타로 구성되었다. 찬양의 한절 한절마다 은혜와 정성이 담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혼을 기울이는 시간이었고, 찬양 후 박원호 담임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은혜 가운데 집례 되었다.

호산나 찬양대는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찬양대"라는 목표아래 90여명의 대원이 "삶으로 준비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공진권 대장은 호산나 찬양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한다. 임연옥 기자

주님의교회

사랑나무 시작합니다!



사랑나무는 발달장애(지적 장애)와 자폐,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이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듯이, 장애인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출 4:11).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의 회복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눅 4:18, 19). 그러므로 천국은 모든 장애와 질병과 인 종간의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나라가 장애인들의 치유로 시작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볼 때, 이 땅의 장애인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복음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발달 장애인, 자폐 장애인과 함께 하면 나의 지위와 지식과 형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 않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가르치려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겸손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도록 노력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역은 복된 사역입니다.

이번에 발달장애, 자폐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나무를 계획하며, 장애인에 대한 공부와 다양한 교회를 탐방으로 공통된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자라나기 위한 영적 회복과 공급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발달장애, 자폐 등의 장애를 가진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이 회복되고 변화가 생기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힘을 얻습니다. 헌신적

인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안정감을 경험하고,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예배와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랑나무는 장애라는 아픔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가정과 교회에 나눌 것입니다. 4월19일 오전 11시 30분 제3 집회실에서 시작합니다. 장애 아이를 보내주시고, 봉사하는 교사를 위해, 매 순간의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목사



"여전도회 택시 선교요? 기사님들에게 인기 최고였죠."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선교에도 왕도가 없는 걸까? 선교에도 전면승부가 필요하다. 여전도회가 참신한 선교의 길을 열어,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참신한 선교 아이디어는 이름하여 '택시 선교'.

여전도회 주관으로 지난 3월 마지막 주일(29일)에 실시된 택시 선교는 교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님에게 선물 가방을 주며 전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선물 가방에는 목사님 설교지와 빵 2개, 음료수 1개를 넣어서 기사님들께 거부감 없이 설교지를 받아 볼 수 있게 한 의의 있는 행사였다.

이 날 1부 부터 4부 예배까지 진행된 택시 선교를 통해, 500개 이상의 선물 가방이 기사님들에게 전달했으며, 100여개의 남은 선물 가방은 종합운동장역 근처에 정차해 있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나눠드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여전도회를 지휘했던 김운선 권사는 기사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면, "설교지와 간식거리를 함께

넣어 기사님께 드리니 거부감을 갖지 않고 친절하게 잘 받아주셔서 좋았어요.

그 중에는 이미 선물 가방 하나를 받고, 다시 뒤로 돌아가 또 받으러 오는 기사님들도 있었고, 친구 차로 바꿔타고 와서 가방 3개를 받아가는 기사님도 있었

죠. 하지만 전도의 길이 막힐 것 같아서 알지만 그냥 다 드렸어요.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한다면 그게 더 큰 의미이고 보람일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비록 한 주였지만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반응도 좋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시도였지만 어느 선교 방법보다 반응이 좋았던 '택시 선교'. 앞으로도 보다 참신한 선교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의 주변을 주님의 빛으로 조금 더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전소영 기자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통 권 제 24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4월 12일

합즐합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담임목사님 인터뷰

"전 교인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이끄는 40일 캠페인이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오늘로서 캠페인은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될 주님의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합찬행보가 공금하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Purpose Driven of 40Days)을 마치면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간 십자가의 고난처럼 40일을 지냈는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 마음이

길 소망합니다.

그중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1차적으로는 소그룹의 활성화였습니다. 소그룹은 바른 목회의 시작이며, 교회사역의 최전방입니다.

작은 소그룹들의 결국 나아가야 할 길은 선교일 것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며, 재정만 보내는 것이 아닌 몸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많은 시간이었습니

다. PD40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하지만, 주님의교회는 참 충실하게 해 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된 이 사역은 보통 새벽기도 정도로만 끝내기 쉽지만, 100여명의 준비 팀이 참 쉽지 않은 일을 충성되게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역을 일으키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여름을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

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입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처음 12명을 선발하여 그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점검하여 처음 12명의 교인들이 점차 늘어나 144명의 헌신된 사람으로 훈련하여 전 교인이 최종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의 충실한 교인도 좋지만, 그 보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삶의 환경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PD40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전 교인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사회로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박원호 목사



선교/사역박람회 화보	2면
교회절기안내 부활절	3면
여전도회 택시전도	4면
사랑나무	4면



선교/사역박람회

현장스케치

「섬김」은 더 낮은 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사역박람회로 초대합니다.

3월 29일 주일.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사역'의 구간을 맞이하여, 오전 8시 부터 주님의교회에서는 사역박람회가 열렸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73개의 팀에서 각자의 팀을 알리고자 하루 전부터 캐노피와 책상을 준비하였고, 유기영 목사님 담당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73명이 사역을 지원하게 되었다. 각 부서의 바쁜 사역에도 불구하고 15시까지 순번을 나누어 부서를 소개하였고, 특별히 4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의 홍보는 열정적인 찬양으로 사역박람회장이 고무되었다. 이렇게 많은 팀에서 온전한 교회사역을 위해 매일 혹은 매주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제심이 감동으로 전해졌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명을 충성되어 감당하는 각 사역팀의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주형 전도사

「주님 나라」에선 누구나 꼭 필요한 존재 -선교 박람회 성황리 개최

목적이 이끄는 40일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주(4월5일)에 교회 마당에서 열린 선교 사역 박람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됐다. 농어촌교회 선교팀, 북한 선교팀, 주한 외국인 선교팀, 의료팀, 범죄팀 등 다양한 분야의 선교 부서가 마련되었으며, 이날 하루에만 총 250여명의 교인들이 선교 신청서를 제출해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의료팀은 교인들의 혈압을 재주고, 의료 상담을 해주는 등 의료 봉사를 통해 가장 많은 인파를 끌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했던 손영익 안수집사는 '할일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쓰임이 있다'며, 선교 박람회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 가이드북 '땅끝까지'의 마지막 페이지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선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소영 기자



교회절기안내-부활절

부활절(Pascha)의 기원에서 오늘까지...



1. 파스카(Pascha)의 기원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

교회력은 4세기 말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처음에는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사순절과 부활 절기, 그리고 오순절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4세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관련하여 주현절이 등장했다. 이 주현절이 4세기 말에 성탄절과 나누어지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대림절이 생겨나게 되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력의 기본은 4세기 말에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과 수난, 죽음, 부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회력의 중심으로서의 부활절(Pascha)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서의 기록들과 첫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유월절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고, 명칭도 그대로 유월절 즉 "파스카(Pascha)"를 사용하였다. 파스카(Pascha)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유대인의 축제일"(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Pascha)이라고 한 데서 따 온 것이었다. 그리고 파스카(Pascha)라는 히브리말의 뜻은 "넘어 간다"(pass over)는 것이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를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상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구속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로 새롭게 지키게 되었다.

즉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어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놓인 부활절이라는 새로운 의미로써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교의 파스카(Pascha)축제는 "일요일 중의 일요일"(Sunday of Sundays), 즉 부활절로 승화시킨 날이다. 즉 교회력은 한마디로 이 파스카 절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2. 통합적 절기로서의 부활절(Unitive Festival)과 절기의 분리

처음 3세기 동안에 교회는 부활절(Pascha)에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같이 기념하였다. "십자가와 부활의 통합적인 기념 잔치"(unitive commemoration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로서 초대교회는 이 파스카 절기 때에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을 함께 지켰던 것이다. 그러나 4세기에 이르러 부활절(The Pascha)은 여러 날의 축제로 나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이나 장소에서 각각 따로 분리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순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의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유월절 주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와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미 4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성주간(Holy Week)이 완성되어 성목요일(Holy Thursday), 성금요일(Good Friday), 성토요일(Holy Saturday), 그리고 부활절 이브(Easter Eve)와 부활주일(Easter Day), 고난/종려주일(Passion/Palm Sunday) 그리고 다른 3일(목, 금, 토)보다는 덜 중요한 날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주간은 작은 날들(월, 화, 수: Three lesser days of Holy Week) 등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그래서 4세기 말 어거스틴은 "복음서에 주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후 다시 사셨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 성서에 기록된 날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3.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활절의 풍습

1) 부활절 철야제와 새벽 예배(일출 예배) 부활절 철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부활절 주요 의식으로 성 토요일과 부활 주일 사이에 거행되었다. 히폴리투스가 지은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에 의하면 이때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배풀어지고 성찬을 나누었다고 한다. 부활절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풍습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다. 이는 초대 교회 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위로 세 번 뛰어 오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광선은 기쁨의 춤을 추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을 보기 위해 새벽에 넓은 들이나 언덕 꼭대기에 모여 기도하고 노래, 부활 축하 타종 등으로 해돋이 순간을 맞이하였다. 오늘날도 이러한 풍습은 유럽 등지에서 행해지며 미국에서는 새벽 예배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로 새벽에 곳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2) 부활절 달걀 나누기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 주는 풍습은 많은 부활절 풍습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다. 달걀은 봄과 풍요의 상징으로, 달걀을 주고받는 것은 원래 새해에 행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는 주님이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히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부활절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붉은 색 또는 그 밖의 여러 색의 물감으로 색칠한 달걀을 선물로 주는 풍습은 어느 불우했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을 잃고, 살던 집조차 빼앗겨 살길이 막막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부인을 도와 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부인은 그 마을에 대한 보답으로 축복하는 글과 성경 구절을 달걀에 써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이것이 점점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한편 부활절 달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그 겹집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바위 무덤을, 달걀 겹집에 칠하는 붉은 색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김주형 전도사

〈참고도서〉 Horace T. Allen, Jr., A Handbook for the lectionary (Philadelphia: The Geneva Press, 1980)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세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

2009년 전반기 세례입교예식이 4월 5일 4부 예배시간에 거행되었다. 이 예식으로 58명 성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0명이 입교를 통해 정식 교인이 되었다.

6주간의 교육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교우들과 사귀고 가졌다.

세례자들은 교육을 통해 살아온 지난 세월의 죄의식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신앙을 출발하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그간 진행된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영적 성장을 가속화 시켰다. 특별히 소그룹에도 참석한 경험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귀한 시간이었다고.

'목적 40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 소명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한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고 전했다. 서정하 기자